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최재명* · 이봉원** · 김혜경***

I. 서 론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수준은 열악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즉, 의료시설의 중앙집중화, 사후관리체계의 미비, 무질서한 요양원문제, 장기입원위주의 수용치료로 인한 치료시설의 대형화 및 수용화, 사회복지시설의 전무상태,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편견, 지지체계의 무관심 등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런 충분하고 지속적인 치료의 실패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관리모습이 정신질환의 재발과 자기수용이라는 악순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결국은 사회환경적 격리와 심리적인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상이 약물치료로 일단 호전된 후에 사회복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이들을 위하여 병원·의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실시 가능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증상의 소멸과 함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에 만성정신병 환자에 대한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겠다.

이에 사랑밭 재활원, 샘솟는 집, 용인정신병원의 직업재활 및 취업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살펴보며,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재활치료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기를 바란다. 단지 소개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본 프로그램들이 일반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보편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체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II. 본 론

1. 사랑밭재활원의 직업재활

200여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만성정신분열증으로서 작업이 가능한 사람은 병실내 작업, 병실외 작업,취업으로 구분하여 직업재활을 시행하는 데, 환자의 요청이나 기능평가에 따라 융통성있게 작업에 참여하며, 병실내 작업은 봉투(쇼핑백)작업과 등공예, 수직공예,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병실 외 작업으로 주방작업, 가축사육과 영농, 세탁, 매점운영, 사무실 보조등의 작업을 하며 실험적 백쥐 사육장과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취업하고 있다. 작업마다 각각

* 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 부회장
** 샘솟는 집 사회사업가
*** 용인정신병원 사회사업가

소정의 작업비가 설정되어 있어 작업에 대한 보상을 주며 개인 용돈으로도 사용하고 각자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기타 보상프로그램으로 면회, 외박, 외출, 장보기, 계절별 소풍, 문화시설 관람, 여름캠프 등을 시행하며 최후의 보상으로는 사회복귀 즉 퇴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화의 경험은 환자의 심한 자아평정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며 사회적 기능을 개선시키고 퇴원률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인 고립을 감소시키고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2. 태화 샘솟는 집 취업프로그램

1986년 심리사회재활모델의 하나인 클럽하우스모델을 도입하여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인 태화 샘솟는 집(이하 샘집)에서는 샘집이 지역사회내의 정상적인 환경에 위치하여 정상화와 지역사회와의 접촉, 통합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프로그램 역시 만성질환자만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회원들을 수용하는 일반 취업장에서 건강한 동료들과 함께 일정기간 일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취업을 준비하도록 돕는 임시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담당사회사업가, 취업프로그램 참여 회원과 그의 가족, 주치의, 부서담당사회사업가, 고용주 등이 동참하여 자신감 향상과 사회기술훈련, 취업경험을 목표로 준비하는 '취업준비교육반'이 현재 3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회원자신의 취업의욕, 교육참여의사가 가장중요한 요소이고 '임시취업프로그램'에서는 정상적인 취업장에서 3~6개월간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주20시간 내외의 시간제로 근무하며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으며 일하는 프로그램이며 현재까지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4곳의 취업장에서 7명의 회원이 일하고 있으며 담당사회사업가는 매일 방문하여 계속 유지하도록 돕고, 고용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관련문제를 해결하며 취업외의 시간에는 샘집내부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생활리듬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독립취업'에서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초기 적응이 성취되도록 돕게 되며 월1회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실시하는데 현재는 21명이 영업, 판매직, 생산직, 제본, 학원강사, 자영업, 사무보조 등의 취업이 유지되고 있다.

제반프로그램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취업장의 부족, 열악한 환경과 급여조건,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 회원의 기능저하등이 있으며 사회복귀의 유일한 모델이거나 일반화가 용이한 모델은 아니며 일을 통한 진정한 사회복귀를 돕는 전통적 사회재활모델 프로그램으로서의 이념과 철학을 의미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3. 용인정신병원의 직업재활

본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의료보호환자로서 작업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정신상태의 호전을 보이는 환자이고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사고

의 우려가 적다로 판단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적으며 사회복귀 후에 약물순응도가 높다고 보여지거나 병원내의 작업치료를 3개월이상 유지한 환자를 대상으로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선별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숙식고용-임시고용-정식고용-고용유지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병원근처의 일반사업체를 작업장으로 '숙식고용단계'에서는 입원중인 상태로 6~9개월간 출퇴근하며 작업장 책임자의 평가서와 채료진이 매주 실시하는 집단치료, 월 1회의 Outing과 주말의 원내 산책자유, 상주하는 보호사의 집중적 관찰 등이 이루어 지며 직원들과의 관계형성과 작업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게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이루어지게 한다. '임시고용단계'에서는 일단 퇴원을 하여 작업장의 기숙시설 등에서 거주하며 계속적으로 취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외래치료, 주1회 집단치료, Home-Visiting을 통한 Living Skill Training을 시행하고 약 3개월 정도를 실시한다. '정식고용단계'에서는 외래치료와 Home Visiting을 유지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격려하며 이후 계속 정식고통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단계별 임금은 일반직원의 50%-70%-90~100%로 설정되어 있으며 거의 전액을 개인별 예금통장으로 관리한다.

현재까지 만 22개월동안 75명의 환자가 참가하여 25명만이 Drop-Out되었으며 50명중에는 6명이 가정으로 돌아 갔으며 숙식고용 20명, 임시고용9명, 정식고용15명이 진행중이고 텐트공장, 국수 및 식용유공장, 식당등의 4개작업장에서 작업중이다. 정신과의사, 사회사업가, 간호사, 보호사, 임상심리학자 등 15명의 팀이 활동중이며 본 용인정신병원의 지리적 상황, 치료환경적 상황, 지역사회내에서의 상징적 위치, 중소기업형태의 작업장이 근접해있는 점, 3D현상으로 인한 구인난 등의 복합적 상황에, 병원당국의 전폭적 지원자세, 고용주의 심리적 동기, 환자자신의 직업재활에 대한 동기 등의 조화를 통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거기에 보호자들의 건강한 격려도 필요하다.

III. 결 론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의 환기가 모든 관련 팀들에게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라건대 사회적인 관심의 촛점이 사회문제화된 사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제도적 사회복귀대안'의 제시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위와 같은 지역사회로의 재정착을 위한 지지체계의 동원을 위해 이러한 시범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정신과 치료가 재활치료로 연결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을 관련자인 환자, 보호자, 치료진 모두가 공유하게 되어야 하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져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실'자체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란다.